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9월 7일 수요일 (음 8월 7일) 제163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새만금 남북 2축 지역업체 참여를”

도내 건설업체 한목소리 공사 발주액 매년 감소해 수주물량확보 어려워 참여확대 지원 절실 의견도

내년 초 발주되는 새만금 남북 2축 건설공사 사업을 두고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지역업체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도내 건설공사 발주액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되는 등 수주물량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업체 수 과밀에 따른 이종고에 시달리는 등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전국대비 전북지역 업체수는 667개사(5.8%)로 16개 시도 중 6위에 해당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또한 2015년 전북지역 종합건설업체 건설공사 실적 역시 지난해 대비 1.3% 감소한 2조5,812억원으로 2년 연속(2013년 2조6,894억원, 2014년 2조6,157억원)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건설공사 발주량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지역 업체들은 까다로운 입찰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14년 12월말에 발주한 3,223억원대 동서 2축 공사(1.2공구)의 경우 참여 조건이 30%이상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도록 규정했지만 권장사항인자라 15%의 지역업체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권장사항 규정은 대기업이 지

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아도 수주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11년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공사(1,2단계, 1공구)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다.

당시에도 지역업체 공동도급을 권장 사항으로 공고했기 때문에 전북업체는 원도급으로서 단 1원도 참여하지 못했다.

새만금 남북 2축 건설공사도 비슷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도내 건설업체는 발주처에 도내 건설사의 참여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입찰 조건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정대영 회장은 “동서 2축은 권장사항으로 규정해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했다. 남북 2축은 진일보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면서 “반드시 3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서 평가기준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지난 2009년 대전 지방국토청이 발주한 금강살리기 생태하천 조성공사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 평가항목에서 30%이상 참여 부문에 2점 배점을 준 사례가 있었다”며 “협회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협조도 필요하다. 지역업체 보호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남북 2축 공사는 총공사비만 9,190억원이 투입되고 4개 공구에 폭 6~8차로 규모로 건설된다. /신광영 기자



희망전복, 청렴으로 물들다
6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도내 7개 공공기관의 감사관으로 구성된 전북공공기관 청렴클러스터 협의회 주최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열린 '제1회 전북청렴누리문화제'에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 도내7개 공공기관장들이 청렴선언 핸드프린팅을 갖고 '희망전복 청렴으로 물들다'라는 수건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지역발전 저해 문제, 해결 대안 역시 지방정부에”

송하진 도지사, 아태지부 총회서 선언문 발표

군산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6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이틀째인 6일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의 새로운 도시 어젠다 실행결의를 위한 전북선언문이 발표됐다.

선언문에는 이번 총회의 주제인 '새로운 도시 어젠다 : 지역, 생명, 문화'에 대한 회의 결과를 담았다.

선언문은 송하진 지사가 발표한 가운데 아태지역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실행하기로 결의했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선언문에서 “지

역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역시 우리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총회를 통해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를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지름길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전북선언문 발표에 앞서 총회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리앉은 섬, 몰디브(Maldives)와 키리바티(Kiribati=키리바시공화국)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발표자로 나선 키리바티 지방정부연합 행정관은 “온난화와 기후변화의 문제는 키리바티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도시가 위기를 인식하고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계 인구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청년을 대표해 도내 대학교에서 유학하고 있는 해외 유학생들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창조적, 혁신적 지방정부의 역할을 비롯해 도시간 협력이 필요한 이유와 협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과 '문화적 가치'를 주제로 하는 패널세션 회의가 진행된 것을 비롯해 지속가능 발전목표와 지방재정, 농업, 도시혁신 등 다양한 세션회의가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농도인 전북도는 '농업세션'을 직접 주관해 '지속가능한 농업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편 이번 총회의 세션회의는 이날 마무리되며, 7일 주제와 관련된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고,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총회의 집행부 및 이사회 임원, 회장 선거가 있다. /고민형 기자

정부, 김영란법 시행령 의결... 28일부터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이 6일 의결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2면>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규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

로 규정된 가액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가액기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됐으나, 입법 취지와 국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의 가액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결과에 따라 오는 2018년 말에 음식물, 선물 등에 대한 가액범위를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시

‘우리학교 사회교과서, 한지로 만들었어요’

한지로 제작된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 시범교재가 전주중앙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달됐다.

<본보 9월 6일자 4면>

전주시와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 전주교육지원청은 6일 전주 중앙초등학교 한지방에서 조봉업 한국전통문화전당 이사장(전주부시장), 허승복 전주시의원, 전주교육지원청 강석근 교육지원국장, 초등교육과 홍인재 장학사, 한지산업지원센터 임원애 연구개발실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지 교과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조봉업 전주부시장(한국전통문화전당 이사장)은 이날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가 시범 제작한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의 사회교과서(지역교과서) 30여권을 학생들에게 일일이 나눠주고 일일



교사로 한지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한지교과서는 전주를 소개하는 교과서로 전주교육지원청의 자

료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아이들에게 전달된 한지 교과서 외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교과서 10여개가 담당 교사에게 전달됐다.

한지교과서는 한지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학생들에게 기록문화유산인 한지의 우수성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 관련 콘텐츠로서의 한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봉업 부시장은 “우리 아이들이 기록문화유산인 한지의 우수성을 느끼고 배우며 큰 꿈을 키워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추석맞이 장수 농·특산물과 함께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장수사과

장수한우

장수토마토

한과세트

오미자 진액

장수생표고

www.장수물.com 장수물 MALL